

이 공계 학생이라면 한번쯤은 연구소가 산재한 대덕연구단지의 연구소에 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과학 잡지를 접하면서 생명공학이라는 분야에 깊은 호기심을 키워왔고, 지속적인 궁금증으로 머리 속은 말하자면 ‘호기심 천국’이었다.

학사과정을 마치고, 대학원을 지원한 상태에서 연수과정을 통해 무작정 대전에 왔다. 숲이 우거지고, 조용하고 한적한 분위기가 좋았고, 연구소 건물 밖에서는 좀처럼 사람구경하기 힘든 풍경도 흥미로웠다. 무엇보다도 ‘원하는 것을 직접 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이곳에 와서 알게 된 것이 학·연이라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대학원에서 교과과정을 이수하면서 대학원의 교수님과 연구소 박사님의 공동지도하에 교육과 연수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학교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었던 DNA 칩 기술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고, 연구소 생활


학업과 연구,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을 접해볼 수도 있었다.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독성평가 시스템에 대해서도 전체를 고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학·연이라는 제도는 공부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학생이 스스로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학교와 연구소가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는 한 대학원의 교과과정과 연구소의 실습은 따로따로 진행되기 십상이다. 더욱이 풀타임 석사보다는 교수님의 시선이 그리 뻑뻑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다.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당하지 않고 그냥 너그럽이 용서되는 경우도 많고, 어느 정도는 학교의 관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무관심도 있지 않나 싶다.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으로서의 여간 서운한 일이 아니다. 그나마 모교이기에 학교에 이런저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었고, 학부 때부터 뵈던 교수님들이라 녀석 좋게 쫓아다닐 수 있었다.

그러나 학교를 통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는 장학금의 혜택 여건에서 벗어났으므로 학비를 걱정해야 했고, 비록 내가 선택한 길이었지만 대전과 인천의 지역적인 문제로 체력적인 뒷받침도 상당히 필요했다. 학·연이라는 제도가 대전지역 이외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연구소에 다니면서 선택할 수 있는 학교의 폭도 그리 많지 않은 문제도 있었다.

이제 연구소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집으로, 다시 연구소로 서울과 인천, 그리고 대전을 넘나들며 곳곳이 수업을 들었던 지난 18개월을 뒤로 한다. 무사히 석사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연구소 박사님과 학교 교수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이제는 많은 일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강인해진 나를 만나게 되었다.

학교에서 이러한 제도를 후배들에게도 알리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 학교와 연구소는 말 그대로 두 마리의 토끼일지 모른다. 체력과 자신감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연구와 학업에 있어서 확실한 미래설계가 되어있다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 

글_ 임정선

안전성평가연구소 독성유전체

연구팀 연구원 jslim@inhaian.net